

# 북극의 국제정치

진동민

북극은 연중 가장 더운 달인 7월의 평균기온 섭씨 10도 등온선의 이북지역을 말하며 대략 북위 70도의 북쪽이 이에 해당된다. 북극해는 유라시아와 북미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로 1,400만 제곱킬로미터에 평균수심 1,200미터로 전 세계 해양의 3.9퍼센트를 차지한다. 북극권에는 약 40개 민족의 원주민과 이주자를 포함하여 약 4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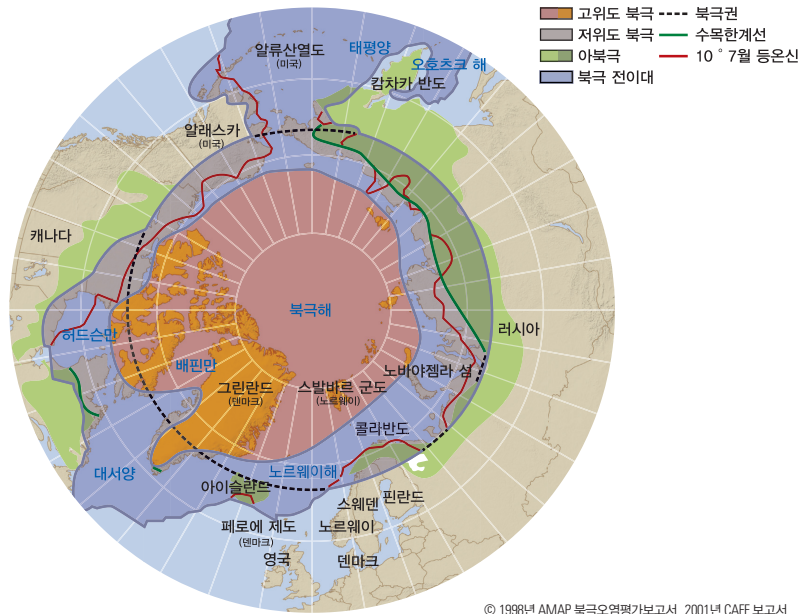
북극은 옛날부터 그 곳에서 살아온 사람 말고는 가까이 가기 힘든 곳이다. 춥고 가까이 갈 이 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면서 북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곳이 되었다.

## 무르만스크 선언에 따라

그러나 북극이 언제나 닫힌 곳은 아니었다. 곧 1987년 구소련 고르바초프(Gorbachyov) 서기장이 무르만스크(Murmansk)에서 북극권의 개방과 북극 평화지역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무르만스크 선언은 북극의 비핵지대화, 군함활동의 제한, 자원 이용의 평화적 협력, 과학조사와 환경보호의 공동노력,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무르만스크 선언 이후 북극해를 둘러싼 북극권 8개국은 1989년부터 북극해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공동협력방안 논의에 착수하였다. 1991년 핀란드 로바니에미(Rovaniemi)에서 '북극권 환경보호선언'을 채택하고 북극권 산성화, 방사능, 소음, 중금속, 기름, 지속성유기오염물질 등 오염의 근원과 그것이 환경과 북극원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위한 과학연구에 협력하고 관련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후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하여 1996년 캐나다 오타와(Ottawa)에서 북극이사회 설립을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8개 북극권 국가들은 과학조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1988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Stockholm)에서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러시아, 스웨덴, 미국의 과학자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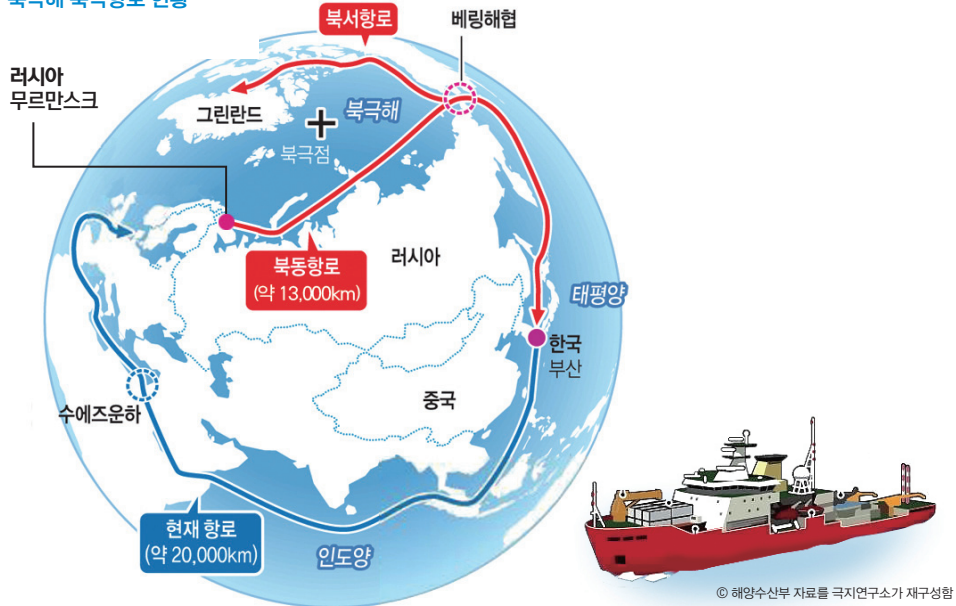
명이 모여 국제북극과학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mmittee, IASC)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위원회는 몇 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거쳐 1990년 8월 설립되었다. 북극과학위원회는 북극권에서 기초 및 응용분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북극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우리나라는 다산과학기지를 설치한 2002년 북극과학위원회에 가입하였으며 현재 21개 국가가 가입하여 활동한다.

## 21세기 들어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가 북극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첫째, 최근 지구가 더워지면서 그 영향이 북극에 집중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2004년 북극이사회는 ‘북극 기후영향평가’를 통해 북극의 기후변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미국빙설자료센터는 1979년 위성관측을 한 이래 2007년의 북극 해빙이 최소로 기록되었으며, 2012년에는 1979년에 비하여 49퍼센트, 2007년에 비하여 18퍼센트나 감소하였다고 발표했다. 반면 북극의 바다얼음이 감소됨에 따라 새로운 항로로 북극항로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가고 있다.

둘째, 북극에 엄청난 지하자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지질조사소는 2008년 미개발천연가스의 30퍼센트, 원유 13퍼센트가 북극해 수심 500미터 이내에 부존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2000년대 들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다. 예컨대, 러시아는 2001년 12월 북극점을 포함한 로모노소프(Lomonosov) 해령까지 유라시아 대륙붕이 연장되어 자국의 대륙붕이라고 주장하는 서류를 UN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나

북극해 북극항로 현황



아가 2007년 8월에는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 북극점 해저 4,200미터에 티타늄으로 제작한 국기를 꽂았다. 이는 외신을 타고 전 세계의 북극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였다. 2009년 UN 대륙붕한계위원회는 러시아가 제출한 대륙붕주장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노르웨이와 러시아는 2010년 9월 북극해 해양경계획정을 확정하여 40년이 넘는 분쟁을 마감하고 부존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덴마크, 미국도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주장을 위하여 과학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나아가 2007~2010년 미국과 캐나다는 세차례의 북극공동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하지만 보포트 해(Beaufort Sea)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을 두고 양국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북서항로에 대한 의견을 달리한다.

북극권 외의 국가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해결과 자원개발과 항로이용에 대한 기대감으로 북극권 국가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의 국가들도 북극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북극권 국가들은 자국의 북극정책을 수립하고,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북극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1996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채택된 선언문에 따라 같은 해에 설립되어 북극권 환경보호와 원주민의 보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간 포럼으로 회원국, 상임참가자, 옵저버(Observer), 임시옵저버(Ad hoc Observ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은 북극해 연안국인 미국, 캐나다,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5개국과 북극권에 영토가 인접한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3개국으로 총 8개국이다. 상임참가자는 북극권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대표기구들로 이누이트환극지회의(Inuit Circumpolar Conference), 북극

무르만스크 선언을 계기로  
8개 북극권 국가들은  
과학조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지역의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인류의 이익에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1988년 3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설립을 결의하였다.

**북극자원 현황**

북극에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



**북극 석유 및 가스 매장량**

석유 900억 배럴	천연가스 470억 배럴
전 세계 매장량의 <b>13%</b>	전 세계 매장량의 <b>30%</b>

- 천연자원**
- 석유, 가스 매장지역
  - 석유, 가스 시추지역
  - 석유, 가스 생산지역
  - 다이아몬드

© 슈피겔지 자료를 극지연구소가 재구성함



원주민러시아협회(Russian Association of Indigenous Peoples of the North), 사미이사회(Saami Association), 알류트국제협의(Aleut International Association), 북극아타바스칸이사회(Arctic Athabaskan Council), 그위친국제이사회(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6개 기관이다.

옅저버는 국가옅저버와와 국제기구 등의 단체 옅저버가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초기부터 국가옅저버로 활동해 왔다. 북극 바다 얼음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북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등이 2008년부터 임시옅저버로 활동하다가 2013년 5월에 상기 3개국을 포함한 인도, 이탈리아, 싱가포르가 국가옅저버와 자격을 획득하여 활동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을 포함한 20개 국제기구가 단체옅저버로 가입하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매 2년마다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사항을 결정하며, 그 사이에는 고위관료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장관급 회의를 준비한다. 분야별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북극오염조치계획, 북극감시평가계획, 북극동식물보전, 비상사태예방준비대응, 북극해양환경보호, 지속가능개발계획 등 6개 실무단을 산하에 두고 있다. 북극이사회는 정부간 포럼으로 그 결정사항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2011년 5월 12일 그린란드 누크(Nuuk)에서 '북극항공탐색과 해양탐색과 구조협력약정'을 체결하고 2013년 노르웨이 트롬소(Tromso)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점차 그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스발바르 조약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3개국의 연구기지가 있는 스발바르 군도는 16세기 네덜란드 탐험가 바렌츠가 '험준한 산악(Sharp mountains)'이라는 뜻의 스피츠베르겐(Spitsbergen)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해표잡이와 고래잡이만이 간간히 오면서 '주인이 없는 땅(Terra nullius)'으로 여겨졌다. 그 후, 20세기 초가 되자 석탄 개발을 위해 미국과 유럽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스발바르 군도(Svalbard Islands)를 국제사회에 알린 스발바르 조약은 1차 대전 후인 1920년 2월 9일 미국,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14개국을 원초서명국으로 체결되었으며, 1925년 8월 14일 발효되었다. 주요 내용은 스발바르 군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완전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계약당사국의 선박과 국민은 스발바르 군도와 그 영해에서 어업과 사냥에 관한 권리를 동등하게 향유하는 등 지역 법령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절대적인 평등에 입각하여 방해를 받지 않고 모든 해양, 산업, 광업과 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스발바르 군도에서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 예컨대 스발바르 군도의 가장 큰 도시인 롱여빈에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1920~1930년대에 조약에 가입하였으며, 북극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4년 아이슬란드, 2006년 체코, 2012년 9월 우리나라가 가입하여 43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북극과학최고회의의 폐회식 2011년 4월, 대한민국 서울

##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2002년 4월 29일 스발바르 군도에 다산과학기지를 설치했다. 다산과학기지가 있는 스발바르 군도 스피츠베르겐 섬 니-올레순(Ny-Alesund)은 1920년대 노르웨이 탐험가인 아문센의 북극 탐험 전진기지로 활용되었다. 북극 탐험 중 실종된 이탈리아 탐험가 움베르토노 빌레(Umberto Nobile)를 찾기 위해 아문센이 돌아오지 못하는 북극여행을 시작한 곳이다. 노르웨이가 1960년대 북극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시설을 설치하였으며 1990년대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연구기지를 설치하고 연구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 11개국이 북극연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2011년 3월 27일~4월 1일에는 19차 북극과학최고회의(Arctic Science Summit Week, ASSW)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다. 총 23개국 33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북극과학최고회의의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참여하는 북극관련 국제기구에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ASC), 니-올레순과학자운영회의(Ny-Alesund Science Managers Committee, NySMAC), 북극연구운영자회의(Forum of Arctic Research Operatots, FARO), 유럽극지위원회(European Polar Board, EPB), 태평양북극그룹(Pacific Arctic Group, PAG), 극지과학신진연구자학회(Association of Polar Early Career Scientists, APECS)가 참가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쇄빙연구선 아라온 호를 건조한 이후 매년 북극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극지연구소는 독일 포츠담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의 사무국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